

도지사 공약사업 관리카드

공 약 명	대관령 산악관광지 조성(평창)			관리번호	2-33
추진부서	산림정책과	담 당 자	최인식	전화번호	3710
협조부서	-				
실천목표	임기 이후 완료		추진상황	추진중(정상)	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2~2027년(5년간)
- 사업위치 : 평창군 대관령면 황계리 산1-134번지 일원 외 1개소
- 총사업비 : 69,600백만 원(도비 12,000, 군비 3,000, 민자 54,600)
- 주요내용
 - (대관령 지구)
 - 사업위치 : 평창군 대관령면 황계리 산1-134번지 일원
 - 사업량 : 1개소(삼양목장, 967ha)
 - 사업비 : 54,600백만 원(민자)
 - 사업내용 : 곤돌라 2.4km, 산장호텔 10동, 산악빌라 66동, 글램핑 46면 등
 - (청옥산 지구)
 - 사업위치 :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1-1번지 일원
 - 사업량 : 1개소(육백마지기, 53ha)
 - 사업비 : 15,000백만 원(도비 12,000, 군비 3,000)
 - 사업내용 : 테마정원 15ha, 아트센터, 전망대, 친환경 운송시설 등

□ 재원투자 실적 및 계획

(단위 : 백만 원)

구 분	총사업비	연도별 투자 실적 및 계획						
		기투자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임기이후
계	69,600	0	2,375	3,125	5,125	8,125	8,250	42,600
도 비	12,000		1,900	2,500	2,500	2,500	2,600	
시군비	3,000		475	625	625	625	650	
기 타	54,600				2,000	5,000	5,000	42,600

□ 추진실적(성과)

《기 추진실적 : '24. 3분기 기준 누계》

- 대관령 지구(규제완화)
 - 대관령 산악관광 관계기관 업무협약(도, 평창군, 삼양) : '24.2.
 -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'산악관광 규제완화' 건의 : '24.3.
 - 국무조정실(특별자치시도지원단) 현장 방문 및 추진상황 보고 : '24.4.
 - * 참석 : 국무조정실, 강원특별자치도(자치법령과, 산림정책과), 평창군, 삼양목장
 - 「국유림법」, 「초지법」, 「토지보상법」 등 관련법 개정안 발의 : '24.6.
 - 대관령 산악관광 관계기관 업무협약(도, 삼양) : '24.7.
- 청옥산 지구
 - 지방소멸기금 지원대상 선정(도) : '22.4.
 - 공공건축 기획용역 및 건축심의 추진 : '23.1.~65.
 -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사업 기본·실시설계 용역 착수 : '23.10.
 - 주민설명회 개최 : '24.3.
 -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사업 자문위원회 : '24.3.
 -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사업 2차 주민설명회 : '24.3.
 - 지방정원 컨설팅(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) : '24.6.
 - 청옥산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 승인 신청(산림청) : '24.9.
 - 산악생태관광 활성화TF 킷오프 회의(산림청, 도, 연구기관 등) : '24.9.

《2024년 4분기 현재》

- 청옥산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 승인(산림청) : '24. 12.

《현재까지 목표달성》

주요사업	목표치	추진상황 (완료/추진중/미착수)	추진내용
대관령 지구	<2023> 특례 발굴	추진중	·국유림 사용 등 추진 (관련부처 건의 등)
	<2024> 인허가 및 설계	미착수	
청옥산 지구	<2023> 사전 행정절차 이행	추진중	·공공건축 기획용역 완료(5월) ·공공건축심의 완료(6월) ·설계용역 착수(10월)
	<2024> 조성사업 착수	미착수	· 설계완료 및 사업 착수

□ 도민소통 실적

계	주민간담회, 공청회 등	만족도 조사	민간전문가 자문	언론, 방송	기타
20	3		3	13	1(포럼)

□ 향후계획

- (대관령 지구) 「강원특별법」 개정 및 추가 특례 발굴을 통한 산악관광 활성화
 - 시·군, 민간사업자 의견수렴 및 사업 추진 지원
- (청옥산 지구) 청옥산 산악관광 조성사업 추진
 - ('23.10.~'25.6.) 기본 및 실시설계 → ('25.~'26.) 조성 → ('27.1.) 운영

<기대효과>

- 도내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악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
 - 생산유발(4,209억 원), 부가가치유발(1,806억 원), 일자리 창출(6,671명)